

尙州地方의 古住宅 庭園樣式에 關한 研究

朴永達*·申永澈**

*忠北大學校 大學院 園藝學科

**忠北大學校 園藝學科

A Study on the Traditional Garden Style of Sang Ju Districts in Korea

Park, Young-Dal* · Shin, Young-Chul**

*Dept. of Horticulture, Graduate School, Chungbuck Univ.

**Dept. of Horticulture, Chungbuck Univ.

SUMMARY

To investigate the traditional garden style of Sang ju Districts, 5 renown houses of noble family in Lee Dynasty were chosen to survey the environmental landscape and characteristics inner and outer space.

1. Traditional houses were located in natural environments based on topography(pung su—ji ri : forming philosophy of Taoism Buddhism and Korea native Shamanism) which were reflected the 5 Elements of positive and Negative(Yin and Yang5 Elements)
2. The formation of space is made of oblong by fence arrangement of dwelling housos has An Chae and Sa Rang Chae, an inner court of AnChae has style of oblong, an outer court of Sa Rang Chae has style of similar oblong. Inner court is closed and outer is half opened.
3. Flow planning is straight and blique line because arrangement of dwelling houses is formed by theory of Dong—Suh Sa Taek(東西四宅), the flowing is complicated and connected from gate to room of An Chae.
4. Character of garden have simple neat whereas vegetable yard, green shade tree, and fruit trees have. Houses were built with their natural environments and streams in order to borrow landscaping in Sa Rang Chae. Specially they were not built pond.
5. Houses has one or two vegetable yard along inner and outer space and are seen as mixed planting more deciduous trees than evergreen trees.

I. 序 言

우리에게 先祖들이 물려준 많은 遺産들이 있고, 그 遺産중에 우리가 사는 住居空間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空間이다. 이는 우리 民族이 海外 어디를 가나 매우 같거나 흡사한 空間을 이루며 살아왔는데 1970年度 이후 産業化와 함께 現代人들의 APT 住居空間으로 급속히 이동하는 시점에서 우리 固有의 古住宅은 점차 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現在의 文化財 價値가 있다고 하는 몇개의 古宅에서 이것도 行政官署의 배려로 運營, 관리되어 그 모습만 겨우 유지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이 모습이 빨리 소멸되어질 것이고 우리 先祖가 살았던 住居空間을 이해할 수 없는 後孫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우리의 韓屋은 분명히 歷史속에서 文化的 價値를 갖고 흐름으로 전래 되어온 것이다. 따라서 본 研究는 영남서북부인 尙州地方에 分布하고 있는 傳統家屋인 愚伏宗家, 瓶庵古宅, 江東宅, 依巖古宅, 修巖古宅의 立地條件, 環境의 因子, 空間의 構成 因子 등을 구명하여 現代와의 發展要因은 물론 造景文化를 繼承 發展시키며 새로운 傳統空間을 定立하는 研究가 重要 하다고 생각한다.

II. 調査方法

우리의 造景文化는 原始 現代부터 三國時代, 統一新羅, 高麗, 朝鮮時代를 거쳐 내려오는 중에 政治的, 社會的 혼란과 變化속에서 外來文化의 많은 影響을 받았고 오늘날 古宅의 造景文化도 西歐文物의 流入과 일반대중의 古宅에 관한 無關心속에 그 類型을 變化시켜 가고 있는 관점에서 볼때 조상의 정성으로 잘 保存되어 온 것이 古住宅이라고 생각되어 調査 研究하고자 했으며 調査 課程은 3段階로 나누었다.

第1段階로 文獻에 의한 古住宅의 歷史와 傳統을 調査하였으며 대상 地域은 다음과 같다(상주지 1989).

i. 愚伏宗家は 尙州郡 外西面 愚山里 193-2에 位置하며 慶尙北道 民俗資料 31號로 指定되어 있다.

ii. 瓶庵古宅은 尙州郡 外西面 愚山里 112에 位置하며 慶尙北道 文化財 資料 130號로 指定되어 있다.

iii. 江東宅은 尙州郡 外西面 愚山里 113에 位置하며 文化財로는 指定 되어있지 않다.

iv. 依巖古宅은 尙州郡 洛東面 云坪里 141-1에 位置하며 慶尙北道 文化財 資料 177號로 指定되어 있다.

v. 修巖宗宅은 尙州郡 中東面 于勿里 1102에 位置하며 慶尙北道 民俗資料 70號로 指定되어 있다.

第2段階는 現地踏査를 하여 이들 住宅의 立地, 外部空間, 動線體系, 庭園特徵으로 區分하여 實測 調査하였으며 造庭者의 後孫 및 주변 사람과의 인터뷰, 사진촬영, 스케치등을 통하여 空間構成의 特徵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第3段階는 現況圖를 作成하여 要圖를 分類하고 造景의 方法을 分析하여 古庭園의 形態를 파악하였다.

III. 觀察事項

가. 尙州地方의 環境의 背景

1. 自然環境

尙州는 慶尙北道의 西北端에 位置하여 東西 8km, 南北 15km의 盆地를 이루며 地形은 小白山脈에서 받아내린 휘양산, 청하산, 속리산 등이 東南쪽으로 洛東江을 向하여 傾斜를 이루면서 尙州를 形成하고 있다(상주지 1989). 南西北의 경계에는 큰 산들이 솟아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고산대로 山間盆地에 田畓이 分布되어 있고 東便은 洛東江이 흘러 低지대를 形成하여 平野를 이루고 있다. 氣候는 小白山脈의 東西斜面과 洛東江의 中上流地域에 나타나는 南部內陸型(CSI) 기후에 속한다. 慶尙北道가 이 기후구에 속하는데 다른 기후구보다 年 降雨量이 적고 특히 夏季 氣溫이 높아 年較差가 크다.

年平均 기온은 13.06℃이며 年平均 습도는 60.5%이고 年間 日照時間은 약 2,500시간, 연평

군 강수량은 1,093mm이다(이현규 1985). 토양 조건은 大小 河川流域에 水利를 利用해서 耕作되는 畚이 發達하고 農事를 짓기에 적합하다. 行政區域은 1931年 4月 1日 尙州面이 邑으로 昇格되어 1邑 17面 230洞리가 되었다. 曄후 1986年 1月 1日 尙州邑이 市로 昇格되면서 尙州郡과 尙州市로 분리되었다(상주지 1989).

(李重煥 1972)은 尙州는 옛날 中國의 낙양에 비교했고 조령 아래의 한 큰 都會다. 산세는 웅장하고 함창 평야와 尙州분지의 넓은 들이 있기 때문에 옛부터 곡창지대로 불리워져 왔으며 北은 조령에 가까와 충청 경기와 통하고 東은 洛東江에 임해 金海 東萊에 太白이 되고 頭流로 되어 그 枝脈이 抱擁하는 바의 正心이 즉 영남일대이며, 여기에 또한 洛東江의 長流가 우회곡절하여 風水의 局面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영남지방은 지리적으로 正心政局에 위치하는데 영남의 지붕을 이루는 태백산, 소백산맥의 줄기는 골골마다 奇景을 이루고, 맑은 물줄기가 굽이굽이 흘러 내려 아름다운 자연을 이루고 있다. 특히 산맥들을 관통하여 흐르는 낙동강은 이 지방의 대동맥을 이루고 문화 발전의 첫줄이 되었으며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서로 조화되어 역사적인 전통과 학문이 이어져 왔다(尙州文化研究所 1991)고 하였다.

따라서 尙州地方의 住居空間은 地形, 地勢, 傾斜度, 氣候 等の 要因에 同化되고 自然의 리듬에 歸化하려는 態度로 人間의 屬性에서 용도와 美的 感覺을 가지고 地形에 맞추어 住居空間으로 결정하여 온 것으로 생각된다.

2. 人文環境

尙州는 古代 三韓時代에 辰韓의 領土이었으며 沙伐國이라는 部族國家 형태에서 新羅 12代 眞解王때 新羅에 併合되어 尙州라 이름하였고 李朝 八道 地方行政區域을 定할 때 慶尙와 尙州의 머리글자를 따 慶尙道라 呼稱한 것으로 보아 嶺南 西北部의 行政, 産業, 軍事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또한 人間의 生存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 宗教며 宗教는 文化的 뿌리이자 즐거이고 地域民의 生活과 意識을 理解할 수 있는데 이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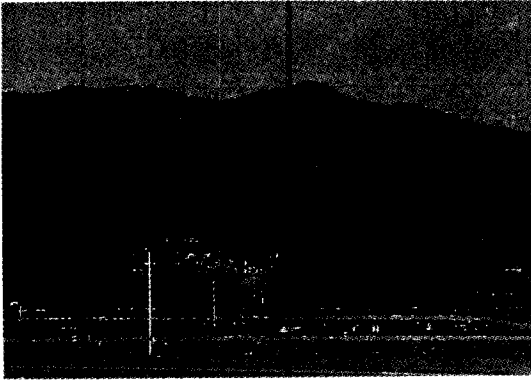
宗教의 影響을 받아 살아온 尙州 地方民의 思想은 古住宅이 創建된 時代로 보아 儒敎의 意味가 깊어 반영된 것이며 다른 宗教의 影響도 스며 들었지만 傳統的인 生活속에 基本 敎理가 많이 浸潤된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오랜 農業國家로 내려 온 것처럼 尙州地方도 大部分의 사람들이 農業에 종사하여 쌀을 中心으로 麥類, 豆類, 薯類, 雜穀類, 園藝作物을 栽培하여 살아 오고 있고, 朝鮮時代의 排佛崇儒의 지도이념으로 忠孝思想 근간으로 하는 유학장려에 힘써 鄕校를 中心으로 한 書院, 書堂의 敎育施設 文化財가 많이 있어 儒敎思想에 젖어 온 곳이기도 하다. 初期 韓國人의 住居 양식은 大部分이 堅穴住居 形式으로 生活를 영위하였다는 事實은 그동안 考古學者들에 의한 住居址의 발굴조사에 관한 문헌들과 특히 1986년 전남 승주군 주안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팀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 後 宗教나 思想이 地形에 맞추어 시도한 形態는 우리나라 住宅의 立地에 風水地理가 뿌리를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박시익 1987). 이는 陰陽 五行 思想에 基礎한 것으로 住居立地, 주변空間의 形成, 또는 樹木이나 庭園石의 配置에 크게 作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事例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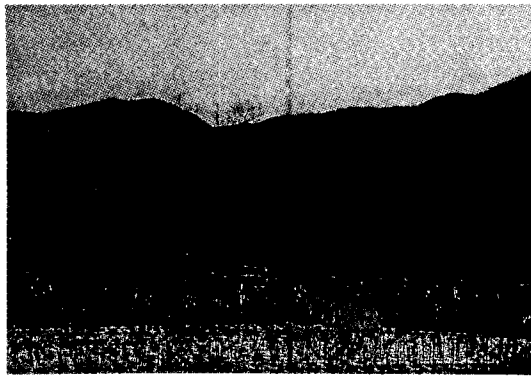
1. 愚伏宗家

① 住宅立地

朝鮮時代 儒學者 愚伏 鄭徑世의 後孫인 15代 孫 鄭椿穆의 所有이며, 愚伏이 國家에 많은 寄與를 한 공로로 對山樓, 道存堂 等の 建物を 下賜받아 愚伏 宗家를 세운 것이 宣祖 38年(1600年)이다 (상주지 1989). 俗離山의 支流인 愚伏山(當時地名: 于北山)이 높이 솟아 이 일대에 뻗어 있는데 이를 眞山으로 하고 俗離山에서 始作된. 큰내는 北으로 흘러 앞산인 國土峰 사이로 빠져나가 愚山川을 이룬다. 前方에 天馬山을 朝山으로 하여 자리잡고 있는 대단한 絶景으로 愚山八景을 바라볼 수 있으며 地勢面으로 매우 뛰어난 地域이다.(이왕기 1990). <사진 1,2>



[사진 1] 우복종가 전경



[사진 2] 우복종가 후경

② 空間特徵

全體的인 坐向은 東向으로 하고 있으며 사랑와 안채, 행랑채가 튼 口字 형태를 하고, 愚伏先生을 비롯한 5代의 神位를 모신 祠堂과 대문채를 습하여 한 울타리안에 配置되어 있다. 山地에 位置한 關係로 사랑마당과 안마당을 除外한 中間 出入通路는 傾斜로 되어있고 소슬대문을 지나 2중 기단을 한 8각 지붕의 建物인 사랑채가 있는데 사랑채의 기단을 높인 것은 이 지역이 경사지라서 안채와의 지붕선을 맞추기 위한 건축적인 의미도 있지만 건물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낮추지 않는다는 사랑방에서 조망되는 천마산의 풍경을 감상하기 위한 정서적인 공간으로써의 효과도 가미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안채는 ㄱ자 집으로 南西편으로 配置했으며 안방과 건너방을 온돌로 하고 대청마루와 부엌은 2칸으로 누마루층

을 이루고 있다. 外部空間은 사랑마당 → 안마당 → 행랑마당, 後園으로 多樣하게 分化되어 있다. 안채의 안마당의 비례가 2.19 : 1로 어느정도 合理的인 인동간격을 維持하는 것이나 사랑채의 제 1계단 85cm, 제2계단 80cm의 높이에 建造된 建物로 울타리 밖의 天馬山의 風景을 建物內로 끌어들이려는 造景의 탁월성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③ 動線體系

정문인 대문에서 사랑채까지는 一直線으로 配置되어 있고 사랑마당을 거쳐 左로돌아 다시 右側으로가면 안마당과 연결된 안채로 이어지고 있다. 안마당에서 北쪽으로 나오면 행랑마당에 연결되며 행랑마당에서 다시 西쪽으로 가면 祠堂에 이르게 연결되어 있다. 入口인 대문에서 사랑채까지는 一直線 空間으로 開放性이 있으며, 안채인 안마당에 이르는 空間은 外部로부터 시선이 차단된 대단히 폐쇄적인 空間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④ 庭園特徵

建物の 南쪽과 北쪽의 部分에 樹木을 심거나 菜園으로 利用한 庭園이 있으며 朝山인 天馬山의 景觀을 利用한 庭園의 形態를 꾸미고 있다. 住宅내 植栽된 樹種을 보면 배롱나무, 환엽해당, 매화, 작약, 사철나무, 불두화, 모과나무, 오죽, 박태기나무, 산수유, 측백나무, 목단, 은행나무, 가중나무, 감나무, 돌배나무, 밤나무, 회양목, 골담초 등이 있고 後園은 장독대와 함께 감나무, 밤나무가 植栽되어 있으며 주변의 은행나무, 가중나무, 모과나무 등으로 食用 및 그늘수로 이용한것같다. 其他의 것은 그 後 後孫들의 趣味와 個性에 따라 植栽되었으며 가급적 옛부터 傳해오는것을 심었으리라 생각되며 돌을 住宅에 利用한 것은 없으나 住宅앞 愚伏川의 물과 住宅에서 볼수 있는 老松과 참나무는 이 古家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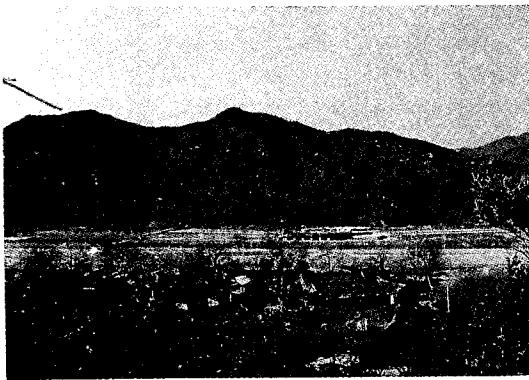
2. 瓶庵古宅

① 住宅立地

愚伏 鄭徑世先生の 6代孫인 幸魯先生이 1770年 經에 지은 집으로 後孫인 鄭憲默의 所有이고 現在는 빈집으로 되어있으며 瓶庵은 현 所有者의 祖父 鄭憂喆의 號를 따라 붙여진 당호이다(상주 지 1989). 이곳의 地勢는 案山인 天馬山(시루봉)이 우산쪽에서 右白虎로 뻗고 다른 한쪽인 東北쪽은 左靑龍으로 展開된다. 마을의 朝山은 愚伏山으로 병풍처럼 보이는데 마을은 風水地理上 龍頭口에 해당된다(이왕기 1990. <사진 3, 4>



[사진 3] 병암고택 전경



[사진 4] 병암고택 후경

② 空間構成

사랑채는 當時의 建物이며 안채는 약 80年前 改築되었다고 하며 대문채, 사랑채, 안채가 모두 같은 向을 하고 있으나 軸은 약간씩 벗어난 配置를 하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아랫채가 있으며 아랫채뒤에 近間에 지은 곳간과 안마당

건너로 창고를 配置하였고 안채는 自然石基壇(42cm)과 柱礎에 角柱를 使用하고 벽체는 흙으로 사벽處理하였다. 사랑채의 平面構成은 부엌이 고방으로 바뀌고, 南쪽 地方의 住宅 안채와 똑같은 방 配列을 하고 있는것이 특이하며 안채 뒤로는 담으로 區分된 空間이며 사랑마당이 完全開放된 外的空間이다. 안마당은 一部開放된 內的空間으로 外部와 폐쇄된 婦女子의 전용공간으로 볼 수 있는 口字형의 配置이다. 사랑채에서 朝山인 愚伏山은 물론 마을앞 들판과 세모꼴인 봉니봉을 觀望할 수 있는 空間構成을 하고 있고 안마당의 庭園構成은 近來에 살았던 後孫들이 우물을 파고 觀木을 심어 觀望했던 것이 나타나 있으나 設立후기에 조영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③ 動線體系

대문에서 약간 斜線方向으로 진입하면 사랑채의 사랑방에 到達되고 右側으로 비껴서 直線으로 이어 안마당 空間에 이르게 된다. 建物 南쪽에 넓은 空間이 있는것으로 보아 過去 菜소원으로 利用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안채의 안마당은 比較的 폐쇄적인 空間이며 사랑마당은 아주 開放的인 空間으로 造成한 動線體系이다.

④ 庭園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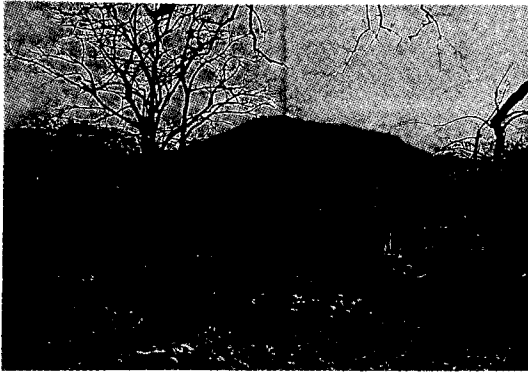
주변을 利用한 庭園構成은 특이한 것은 없고 식용과 그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감나무를 대문 밖에서 부터 대문채의 울타리 부근에 一定한 間격으로 植栽되어 있다. 그 主要樹種은 감나무, 탕자나무, 산수유, 모과나무, 은행나무, 불두화, 밤나무 등이다. 後園은 크기로 보아 장독대 空間 이외에 모과나무와 감나무만이 울타리(흙+돌)에 植栽되어 있다. 이집의 庭園은 주변, 특히 前方에 병풍처럼 展開되는 愚伏山과 들판의 봉니봉을 眺望할 수 있는 庭園空間을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3. 江東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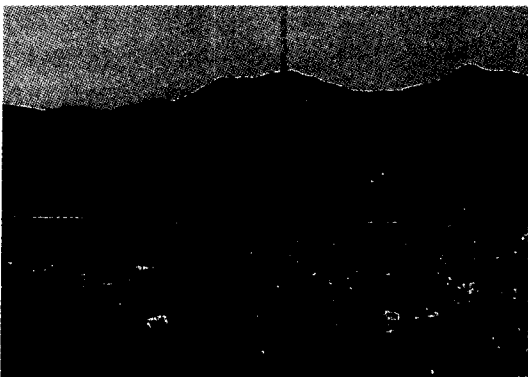
① 住宅 立地

本來 초가였던 建物을 기와로 改築한 것으로 현 生存후손인 鄭在閣선생의 祖父 鄭東杓가 지은

집이며, 築造年度는 1928年徑쯤 推定된다(鄭在明 1989). 愚山에서 보았을 때 洛東江의 東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江東宅이라 이름 지어진 이 건물은 下愚山 入口에 位置하는 上記 瓶庵古宅과 격담하여 있어 같은 立地의 形狀에 位置하고 있다.<사진 5,6>



[사진 5] 강동택 전경



[사진 6] 강동택 후경

② 空間構成

안채와 ㄱ자로 굽은 사랑채와 ㄴ형의 아랫채로 연결되어 있으며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광채가 있고, 外部에서 바깥대문을 거쳐 사랑채에 接近이 된다. 바깥대문과 사랑채 사이에 外部空間, 그리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内部空間은 모두 ㄱ字형을 이루며 안채뒤의 後園과 행랑마당으로 나눌 수 있다. 안채의 平面構成은 南部地方

의 一字형을 하고 있고 안채뒤의 셋담은 婦女子의 살림에 關與되는 作業을 하기위한 空間으로 꾸미고져 한 것 같다. 사랑채 옆으로 도장과 광을 둔 아랫채가 ㄴ字형으로 굽어 안마당 空間의 폐쇄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안마당 右側에 광채를 넣어 사랑이 위요되는 ㄱ字형의 空間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空間의 격리성이 대단히 탁월한 住宅이라 생각된다.

③ 動線體系

대문에서 斜線으로 사랑방에 接近이 되고 사랑채와 아랫채 사이에 있는 안대문을 통하여 안채에 다다른다. 또한 左側 사랑채를 돌면 사랑채와 광채 사이에 소슬문을 두어 안채에 이르도록 되어 있다. 소슬문을 둔 것은 西北쪽에 위치한 行랑채에서 안채와의 접근을 연결 시키기 위한 動線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대단히 폐쇄적인 안마당을 維持하려고 한 兩班家의 상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④ 庭園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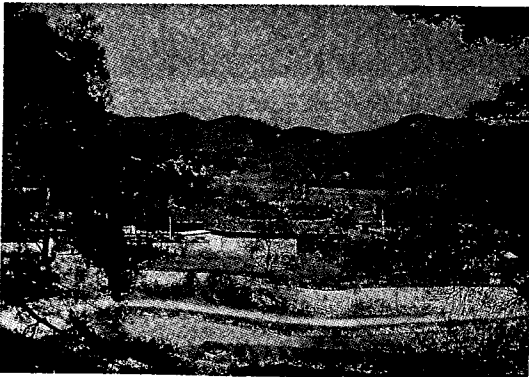
안마당의 ㄱ字형 空間에 채소를 심었으며 모과나무가 植栽된 것으로 보아 넓은 空地를 最大로 利用하려고 했던 것 같다. 아직도 담벽 주변에 여러본의 감나무를 後園에 이르기까지 一定한 間隔으로 植栽되어 있어 當時 그들과 果實을 食用하기 위한 目的으로 傳統手法을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植栽된 主要樹種은 감나무, 산수유, 밤나무, 모과나무, 벽오동, 앵도나무, 호두나무, 은행나무, 회나무 등이 있고 後園은 장독대와 감나무만이 놓여져 있어 實用性이 있는 空間으로 利用한 것 같다. 特히 瓶菴古宅에서와 같이 前方에 展開되는 愚伏山과 들판의 봉니봉을 조망할 수 있는 庭園空間으로 構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依巖古宅(逸憂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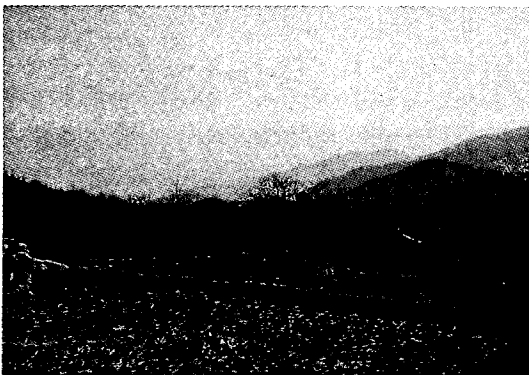
① 住宅立地

이 住宅은 現 所有者 趙俊熙의 7代 祖母가 190餘年 前인 1800年代에 建築한 兩班집으로 洛東面 云坪里에 位置하며 一名 “葛可屋”이라 부

른다(상주지, 1989). 뒤로 높은 산이 있고 동네는 全體적으로 東向을 하고 있으며 뺨어내린 산줄기는 마을 南北을 감싸고 있다. 또한 울창한 森林이 마을을 덮고 높은 골짜기에는 구름이 감돌아 마치 仙景과 같은 風景이라 한다. 逸憂堂 扁額에 先代의 生活哲學이 紹介되고 있는데 그중에 林泉之奇, 山水之美, 梅竹之軟, 槐巖之水, 柱叢之併 등은 이동네의 山水 自然美와 鄉第園林의 아름다움을 表示한 귀절이다. 이리하듯 산을 끼고 일편에 개천이 흐르며 前方은 넓은 들판이 展開되는 아름다운 곳에 位置하고 있다. <사진 8>



[사진 7] 의암고택 전경



[사진 8] 의암고택 후경

② 空間構成

依巖古宅은 이 동네의 中央上部에 位置하는데

대문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큰 바위가 길게 박혀 있고, 바위의 굳건함에 인간이 의지하고자 하는 뜻을 내포하듯 이 바위에 연유하여 태호가 依巖古宅이다(상주지, 1989). 안채, 사랑채, 중문간, 행랑채, 대문간 행랑채, 사당채 등 여러 建物들이 壬坐丙向으로 두개의 軸線上에 各 채들이 配置되어 있다. 긴 삼작과 대문채를 지나 만나는 사랑채는 가운데 대청을 中心으로 左右空間의 機能이 달리 계획되어 있고 대청 前面의 空間에 소나무를 주로한 庭園이 있다. 左側 바깥 主人의 사랑방은 주로 居處의 機能이 있고 右側의 사랑방은 난간을 두는 누마루를 가지고 있어 앞에 展開되는 山野와 담너머의 風景을 鑑賞할수 있는 空間으로 되어 있다. 사랑채를 경계로 右側은 채소원과 산으로 이어지며, 左側은 안채의 生活空間으로 크게 구획되어 있고 각 채마다 各各의 獨立된 空間을 確保하는 감을 주고 있다.

③ 動線體系

동네 入口의 우물에서 돌담을 끼고돌아 이 집으로 통하는 길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依巖) 이를 지나 대문에 이르게 된다. 대문을 지나면 사랑마당이 있고 여기서 소슬문을 통과하면 안마당이 있어 안채에 接近하는 動線이 된다. 각기 建物에 따른 附屬空間 構成이 뚜렷하여 개성이 確實하다고 본다. 안마당은 대단히 폐쇄성이 강한 空間으로 構成하고 있다.

④ 庭園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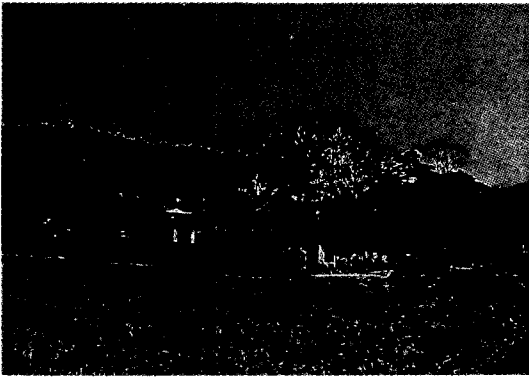
依巖古宅이 갖는 庭園은 北東쪽의 채원, 후원, 사랑채앞의 소규모 원형모양의 庭園으로 區分하여 볼 수 있으나, 이러한 空間은 소극적인 處理로 維持되고 있으며 主庭園 機能은 사랑채에서 앞산의 景觀을 眺望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랑채 앞의 庭園은 소나무(枯死)를 주로한 무궁화, 석류, 회양목 등이 植栽되어 있고 後園은 장독대를 두고 감나무와 앵도나무가 植栽된 지극히 단순한 處理를 하고 있다. 이 古宅에 植栽된 樹種을 보면 은행나무, 향나무, 소나무, 석류나무, 벽오동, 무궁화, 감나무, 앵도나무, 박태기나무, 산수유, 매화나무, 살구나무, 황매화, 회양목, 능수화 등이 植栽되었으며 히말라야시다, 오염송은 近年에

植栽된 것 같았고, 대나무도 植栽되었다고는 하나 現在 枯死되어 볼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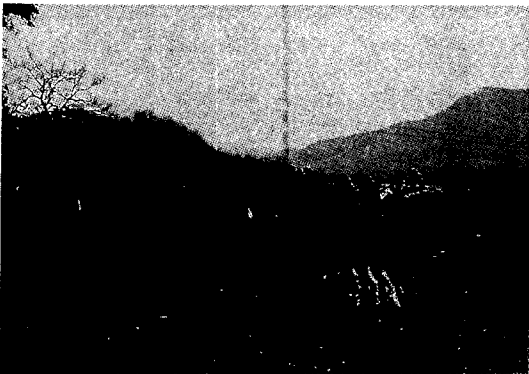
5. 修巖宗宅

① 住宅立地

尙州 東쪽 中東面 于物里에 位置하는데 서애 柳成龍의 셋째인 修巖 柳珍(1582~1635) 공이 이곳 가사리에 定着하여 이어온 豊山 柳氏 마을로 本家屋인 禹川派 宗宅을 建築하기前 지금의 後園 자리에 草屋이 있었고 그곳에서 柳尋春(1762~1834)이 出生하여 살았으며 그 後 左議政까지 지냈던 柳尋春의 자제인 柳厚祚(1798~1875)가 江陵 副使로 奉職하고 있을 當時 1858年 經 建築된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류시완 1990). 이 住宅은 洛東江과 그 支流인 渭川이



[사진 9] 수암종택 전경



[사진 10] 수암종택 후경

합치고 俗離山, 八公山, 日月山의 脈이 이곳에서 끊어져 二水三山이 合하는 梅花落地의 明堂에 位置하였으며 앞은 野山이 三面을 둘러싸고 南向이 특 터져 멀리 洛東江이 바라보이는 展望이 좋은 곳에 獨立家屋으로 南向하여 配置되어 있다(사진 9, 10).

② 空間構成

이 住宅은 根坐坤向(南쪽)으로 안채, 사랑채 그리고 祿使廳으로 構成되어 있다. 前方은 平野로 이어지고 뒤는 野山이 연결되는 지형에 안채, 사랑채, 祿使廳이 자연스런 위계를 形成하면서 本來의 地形에 順應하는 形態로 位置하고 있다(이왕기 1990). 口字형의 안채는 막들로 쌓은 基壇위에 自然石을 놓아 方柱를 세웠으며 前面의 사랑채와 後面의 안채 兩翼의 翼舍채로 연결되어 있고 前面의 사랑채는 막돌 허튼층 쌓기의 基壇위에 ㄱ字로 연결하여 안마당 空間은 口字형의 空間을 構成하고 있다. 祿使廳에 딸린 楹間空間 안채를 中心으로한 안마당 空間, 사랑방空間은 楹間 空間과 중복이 되며 동상방에 딸린 空間은 수납 空間으로 마을에서 떨어진 곳의 住宅에서 穀食을 다루는 곳으로 出入을 제한하기 위하여 大門을 통해 들어가는 폐쇄 空間으로 構成하고 있다.

③ 動線體系

進入路에서 出入口를 거쳐 祿使廳의 空間을 만나게 되며 이는 안채의 建物과 구획하여 區分하고 있다. 사랑방 空間에서 中門을 거치고 다시 돌아 동상방에 딸린 中門을 지나 안마당에 연결되는 動線을 갖고 있으며 또다른 動線은 사랑채에서 左측에 있는 부엌문을 통해 안채에 이르게 된다. 이는 穀食을 보관하는 전이의방(동상방)에서 다시 두지로 가기까지에 管理하는 意味에서 開放 → 半 閉鎖 → 閉鎖空間의 전이를 構成한 것 같다.

④ 庭園特徵

庭園空間은 祿使廳의 空間, 祀堂 주변의 空間은 은행나무, 앵도나무, 전나무, 배롱나무, 탕자나무와 後園은 自然 그대로의 2組4石인 암석이 있다

며 감나무와 탕자나무로 담벽에 붙여 植栽하였다. 이 住宅의 울타리에는 많은 탕자나무가 생울타리의 效果를 얻은 것으로 담벽과 함께 機能植栽을 하고 있고 사랑채에서는 멀리 특 터져 보이는 洛東江과 나각산이 景觀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 住宅에 植栽한 樹種을 보면 탕자나무, 대추나무, 배나무, 매화나무, 석류나무, 불두화, 은행나무, 감나무, 참나무, 오죽, 배롱나무, 앵도나무, 무화과, 무궁화, 사철나무, 모과나무, 홍단풍, 호두나무, 구기자, 주목, 가이뜨카향나무등이 植栽되어 있고 이 중 近年에 後孫들이 임의로 심은것이 많이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IV. 考 察

어느 國家도 文化는 永遠히 變化하지 않을 수 없으며 外來文化의 도입과 自體의 욕구에 의해 계속적으로 變化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朝鮮時代 後期에 해당되는 上流 住宅을 가지고 住宅文化와 關聯된 庭園 文化의 변천 過程을 調査하는 目的으로 進行한 것이다. 더욱이 地域文化의 보수성이 강한 尙州에 質的 價値가 높은 古住宅이 많은 것에 크게 留意하고자 한다.

지금 現存하는 上流 住宅은 거의가 兩班 階級이 居住하던 곳으로 이들은 優越感을 갖고있는 지식층이며 지배자였는데 朝鮮 後期時代에는 社會的, 經濟的 秩序가 서서히 變化되는 過程에서 심하면 兩班의 체면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經濟力에서 下向한 階層이 나타나는 時代 狀況이기도 하다 그것이 그 後 300餘年 지나오는 過程에서 지금은 명맥만 유지 하거나 아니면 外地로 거의 떠나 빈집으로 두거나 行政當局의 손길을 거쳐 그 이름만 갖고 있는 모습은 우리 民族의 한 歷史같기도 하며, 이같은 身分制度에 얼마나 큰 變化가 있어 왔다는 것을 實感할 수 있었다.

① 住宅立地

士大夫들은 익힌 學問을 옮기는 것인데 어찌 되던 벼슬에서 물러나면 향리로 돌아 갔고, 士大夫의 行實을 갖는것은 禮를 갖추는 것이며, 이는 富와 밀접한 關係를 갖고 있다. 이런 條件을 갖

추자면 地理, 生理, 人心, 山水가 좋은 장소를 찾게 되었고(이중환 1972) 이런 의미에서 經濟的, 人心, 山水가 좋은곳에서는 뛰어난 人物이 배출된다는 뜻으로 집터를 고르게된 것 같다. 한국 建築에서 명당은 “背山臨水”의 吉地로 뒤로는 산을 등지고 옆으로는 산을 꺼얏고 앞으로는 물을 끼고 넓은 들판을 둔 양지바른 산기슭의 완만한 경사지 바로 그곳이며 風水上的 “藏風得水”를 할 수 있는 環境이기도 하다. 人間의 根本的인 生活 바탕은 自然에 있으므로 住居 生活에서 自然的인 條件들은 人間의 生活에 直接的인 影響力을 行事함으로 人間은 이들 自然의 環境에 順應하면서 그들의 자리서 各各의 文化를 發展시키게 되었다(박시익 1987). 人間이나 自然의 根本的인 存在를 陰陽五行 思想이 크게 미친 風水 地理說에 따른 自然觀을 가지고 士大夫들은 住居의 立地를 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禮를 대상으로 하는 古宅에서 愚伏宗家は 愚伏山을 眞山으로 天馬山을 朝山으로 사이에 흐르는 愚山川을 끼고 있는 지형에 位置하며 衣巖古宅은 뒷편이 높은 산과 앞쪽의 넓은 平野에 이어지는 前景과 동네를 흐르는 개천을 끼고 있어 이 地方의 옛 이름대로 “葛可”라는 구름이 안고 도는 마을이라는 이름을 갖는 아름다운 場所에 位置하고 있으며 修巖古宅은 俗離山, 八公山, 日月山과 洛東江, 渭川이 서로 만나는 二水 三山の 명당에 位置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位置에 立地하게 된 理由를 구명하게 되었고 選民意識을 갖는 士大夫들의 學問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理解가 되어 향리로 돌아가는 過程에서 찾아 選地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② 空間構成

立地가 끝나면 대지위에 建物을 配置하게 되는데 主建物의 坐向은 建物이 앉은 자리와 建物이 대면하는 外界와의 關係, 즉 自然과 人間과의 關係를 方位로 설정하는 風水地理說의 自然 活用의 方法을 導入하고 있다(박종하 1989). 建築의 方位에 關한 것은 “東西四宅”論인데 이는 方位 360°를 8方位로 나누어 한 方位를 45°씩으로 나눈다. 그러한 8方位 중에 東四宅 4方位와 西四宅 4方位로 區別한다. 무엇보다 建物의 主要 구조

부와 대문의 位置가 方位上으로 모두 東四宅 方位안에 配置되거나 또는 完全히 西四宅의 方位에 配置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條件으로 한다(박시익 1987). 그외에 陰陽의 調和를 가미시켜 좋다, 나쁘다, 매우 좋음, 매우 나쁘다 등으로 판단하여 配置하여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미루어 修巖宗宅의 경우 眺望되는 外部的 景觀에 따라 向이 미치는 중요성을 따른 것으로, 이 家屋은 당초 사랑채옆 3칸의 방이 東南쪽으로 건축되었다가 철거되고 있는데, 當時 집안에 몇년간 흉사가 겹쳐 그 진위를 風水가 말하기를 東南쪽에 鳳凰城이라는 野山이 있어 그 모습이 상여와 같고 사랑채옆 건물이 그 산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흉사가 생긴다고 보고 그 건물을 철거 시켰다고 한다(류시완 1991). 대상으로 하는 愚伏宗家, 瓶庵古宅, 江東宅, 依巖古宅, 修巖宗宅에서 안채와 대문의 關係를 보면 東西四宅論을 거의가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같은 것은 士大夫의 녀리에 박혀 온 生活哲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住宅의 外部空間은 婦女子를 위한 지극히 밀폐된 私的 空間임을 알 수 있다.

[표 1]의 대지 空間 分析을 보면 형태의 모양과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기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건물의 배치를 지형에 맞춘, 즉 자연에 동화되게 배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단면이 30~78m의 범위로서 1.55:1 규모가 된다.

[표 1] Space characteristic of Site

Division	form	scale(m)	Propotion	Enclosed	direction
愚伏宗家	長方形	48.4×38.7	1.25:1	담장, 홍수돌	東向
瓶庵古宅	不定形, 4角形	38.2×48.4	1.27:1	담장	西向
江東宅	長方形	45.0×31.6	1.42:1	담장	西向
依巖古宅	不定形, 4角形	32.0×78.0	2.44:1	담장	南向
修巖宗宅	4角形	40.3×55.8	1.38:1	담장	南向
平均			1.55:1		

[표 2] 안마당과 사랑마당의 特性을 보면 거의가 長方形의 形態로 平均 안마당이 1.50:1 사랑마당 2.39:1의 비율로 보면 장단면 비례는 1.59:1로 나타나고 있어 마당의 배치거리를 결정하는데 질서있는 자연미인 美的黃金比 1:1.618에 가

까운 수치로 分析된다.

[표 2] Space Characteristics of Mha Tang

division	form	scale-(m)	propotion	enclosed element	territory	function
愚伏宗家	안마당	□ 8.5×7.6	1.12:1	建物	私的	家事
	사랑마당	□ 12.4×36.0	2.90:1		半公的	作業·만남
瓶庵古宅	안마당	□ 8.3×16.8	2.02:1	建物	私的	家事
	사랑마당	□ 10.3×25.9	2.51:1		半公的	作業·만남
江東宅	안마당	□ 11.2×18.6	1.66:1	建物	私的	家事
	사랑마당	□ 14.7×19.2	1.31:1		半公的	作業·만남
依巖古宅	안마당	□ 8.8×12.1	1.38:1	建物	私的	家事
	사랑마당	□ 9.5×29.3	3.08:1		半公的	作業·만남
修巖宗宅	안마당	□ 5.20×6.85	1.32:1	建物	私的	家事
	사랑마당	□ 11.6×25.2	2.17:1		半公的	作業·만남
平均	안마당		1.50:1			
	사랑마당		2.39:1			

[표 3]의 建物과 마당의 시각적 상관성을 보면

[표 3] Space analysis of building and Mha-T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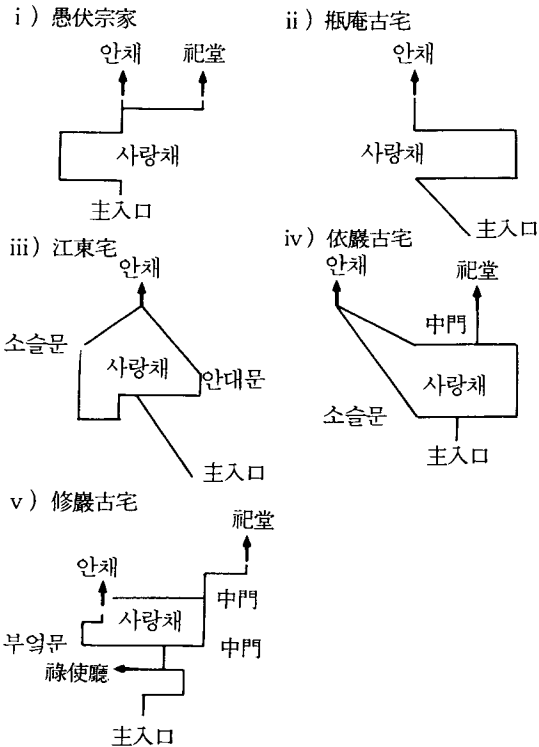
Division	building height(m)		distance(m)		proportion	
	안채(H)	사랑채(H)'	안마당(D)	사랑마당(D)'	D/H	D'/H'
愚伏宗家	3.88	4.40	8.50	12.40	2.19	2.82
瓶庵古宅	3.60	3.15	8.30	10.30	2.31	3.27
江東宅	3.82	3.61	11.20	14.70	2.93	4.07
依巖古宅	4.20	4.20	8.80	9.50	2.10	2.26
修巖宗宅	3.50	3.60	6.85	11.60	1.96	3.22
平均					2.30	3.13

여기서 안채와 사랑채는 처마의 높이고 안마당과 사랑마당은 마당의 세로길이를 나타내는데 안채와 안마당의 비는 2.30:1이며, 사랑채와 사랑마당의 비는 3.13:1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안의 공간은 여성의 공간으로 보고 사랑의 공간은 남성의 공간으로 볼때 士大夫들이 거처하는 안방(女), 사랑방(男)으로 대별하여 사랑의 공간이 안의 공간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들은 活動할 수 있는 안마당, 사랑마당을 區分하

여 禮의 本質이 生活의 신조로 돼 있던 때이니 만큼 自己들의 임무까지도 區分하는 領域性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③ 動線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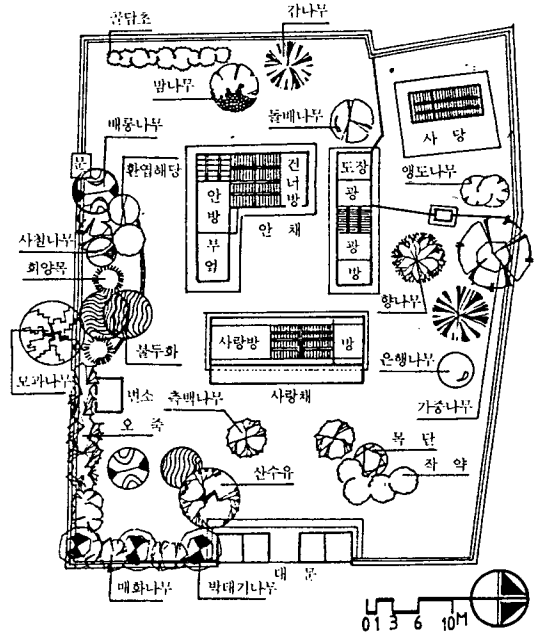
[圖 1]은 家屋의 動線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으로 한 5個 古住宅에서 안채와 대문(主入口)은 東西四宅論에 맞게 입지되고 있는데 대문에서 안채로 通하는 動線을 보면 대문에서 사랑채까지는 “一”字의 形態로 대단히 接近하기 쉬운 상태를 부여하나 안마당을 通하여 안채에 接近하는 動線은 “ㄷ” “ㄴ”의 形態로 中門 또는 소슬대문을 通하여 接近하게 된 대단히 폐쇄성이 강하면서 시각을 차단하는 쪽으로 空間構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圖 1] 5개 고 주택의 동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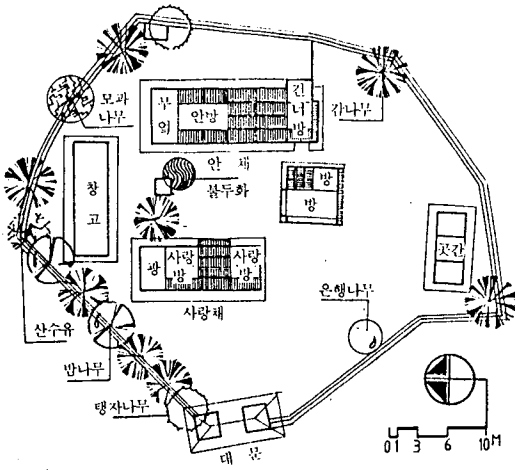
④ 庭園特徵

自然이 建築을 포용하도록 하여 自然之氣의 교류와 호흡을 같이 하는거와 같이, 집밖에 存在하고 있는 경관을 人間이 몸소 찾아가거나 집안으로 直接 끌여오지 않고 집안에서 그저 眺望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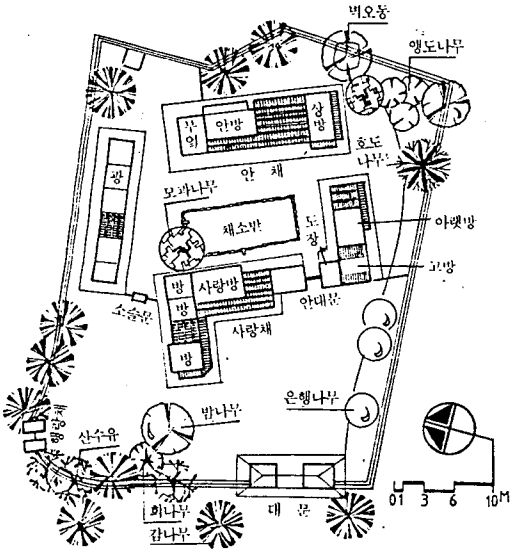


[圖 2] 우복종가 평면도

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구태여 실제로 造景을 하지 않고서도 소기의 效果를 얻도록 하는 方法 (정동오 1990)인데, 庭園을 만드는 기술로 보아 크게 遊景, 取景으로 보며 取景은 借景, 寫景, 選景, 縮景, 意景으로 보는것이 自然形 造景의 方法이라고 볼때 이번 對象으로 하는 古住宅庭園에서는 取景의 一種인 借景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尙州地方에 나타난 정원의 전체적인 특징은 住宅이 立地한 位置가 眺望에 유리한 位置, 즉 사랑방의 방이나 대청에서 주변 자연경관을 다루는데 유리한 空間 構成을 하고 있다. 愚伏宗家は 天馬山을 瓶庵古宅과 江東宅은 愚伏山을 依巖古宅은 옆에 뻗고있는 고장산을 修巖古宅은 멀리 보이는 나각산과 洛東江의 강변을 主眺望 景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愚伏宗家は 垓地의 空間 즉 사랑마당의 部分, 建築의 側面, 그리고 後園에 적절한 유실수나 그늘수를 配置하였으며 채소원은 왼쪽편에 두고 있다 [圖 2], 瓶庵古宅은 후원이 협소하고 우측편에 채소원을 두고, 좌측편에 실용성 있는 과목을 선정함으로써 그늘을 제공받는 정원을 이루고 있으며 [圖 3], 江東宅도 우측과 안마당에 채소원을 가지고 서북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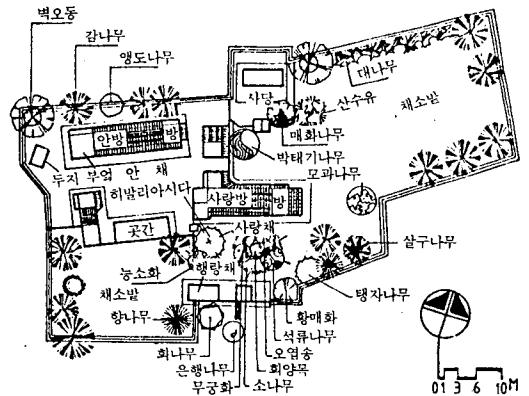
[圖3. 병암고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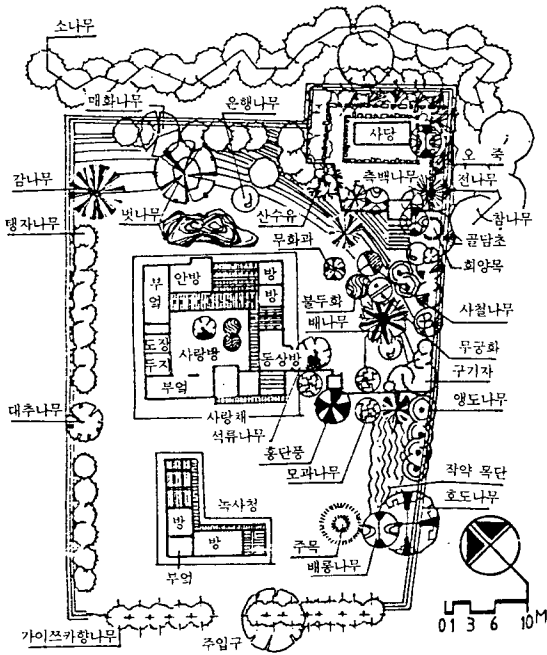
[圖4. 강동고택 평면도]

활엽수를 심어 그늘 및 안채와 사랑채에 바람막이 구실을 하는 방풍기능의 효과를 주고 있다 [圖 4]. 또한 依巖古宅에서 “주택정원에서는 문간채에서 사랑채까지 공간의 깊이와 공간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간체험의 관계를 중간에 삽입하는, 말하자면 좁은 공간에서 일순간 작은 자연을 통과해서 공간의 협소함을 잊게하는 효과” (박종화의 1989)로써, 이 고택은 문간채에서 사랑채까지는 동선이 짧아 사랑채가 직접 문간채에

서 노출되는것을 막고, 공간의 확대감을 주기위한 기능을 가진, 사랑채앞의 소규모 원형모양의 庭園이 특이하다. 또한 사랑채 右側에 넓은 채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규모에 있어 다른 古宅보다 큰데 이는 當時의 이 住宅에 종사한 식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圖 5]. 修巖古宅은 건물의 뒷 야산에 소나무와 참나무로 위요된 수림이 있는데 전체적인 건물과 어울려 배경과 공간의 깊이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後園은 공지가 넓고 건물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외부와 분리되는 공간설정이 되어 있지만 커다란 바위를 中心으로 사면 등고선 處理가 되어 있어 사적인 구실을 주는 공간으로 보기 힘들고 보편적인 채원으로 활용되어 졌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울타리 경계에 탕자나무를 植栽한 것이 다른 住宅보다 特色이 있다고 보며 이 탕자나무는 당초 담장 주변 전체에 植栽 되었다가 비가 올때 빗물이 탕자나무 줄기를 타고 흙담으로 스며들어 담을 무너뜨리게된 原因이라 생각되어 現 後孫이 담높이로 끊었다가 그래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 그후 一部를 除去해, 現在는 傾斜가진 後園 울타리 주변과 祀堂채에만 남아 있다. 그리고 日帝時代에 影響받은 가이즈카향나무가 比較的 많이 植栽된 것을 보아 그후 後孫들이 試行한 것으로 생각된다[圖 6]. 各 庭園에 植栽된 樹種을 보면 낙엽수 29種, 상록수 11種, 其他 4種으로 總 44種이 되는데 유실수 10種, 약용수 6種이고 보면 실용원의 意味를 強하게 주고 있다.



[圖5. 의암고택 평면도]



[圖6. 수림종택 평면도]

여기에 조사된 수종은 현존식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당시 식재된 수종이 자연적인 성장과 고사에 따라 소유주와의 구담을 통한 고사목도 보완 시켰다.

따라서 尙州 5個 古住宅庭園에 植栽된 樹種은 아래와 같다[표-4]. 이는 養花小錄에서 姜仁齊가 分類한 花木九品에 나오는 樹種중 초화류를 除外한 樹種類 및 기타류만 18種으로써 35%의 비율이며, 古住宅에 植栽된 44種 전체수에 41%를 차지하는 전통수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히 연못을 조영한 곳은 없었는데 이는 대부분 주택이 입지한 주변에 맑은물이 흐르는 개천이나 계류를 끼고있어 住宅 가까이 물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이 직접 이용했으리라 여겨지고 담장의 구조는 돌을 흙으로 섞어 쌓아올린 것으로 낮으면서 소박한 정취를 느끼는 일면을 간직하고 있으며 벽면의 장식적인 의도 또한 보이지 않았고, 더불어 흔히 이조시대 상류주택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록수보다 활엽수의 식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그늘 또는 계절감을 느끼고 산야의 자연에 順應시켜 인간의 자연감지 능력을 집안에서도 가질 수 있는 의도로 보여진다.

[표 4] Relative rate of different tree species in Traditional garden of Sang Ju districts

division	deciduous tree	evergreen tree	others	total
愚伏宗家	배롱나무, 환엽해당, 감나무, 밤나무, 불두화, 박태기나무, 돌배나무, 산수유, 모과나무, 은행나무, 가중나무, 골담초, 매화나무, 영도나무	향나무, 사철나무, 측백나무, 회양목	작약, 오죽, 목단	21
瓶庵古宅	감나무, 은행나무, 모과나무, 산수유, 불두화, 밤나무		탕자나무	5
江東宅	감나무, 모과나무, 영도나무, 산수유, 은행나무, 호도나무, 벽오동, 밤나무, 화나무			9
依巖古宅	은행나무, 산수유, 석류나무, 매화나무, 무궁화, 모과나무, 살구나무, 벽오동, 영도나무, 박태기나무, 감나무, 황매화, 능소화, 화나무	소나무, 회양목, 오엽송, 향나무, 히말라야시다, 탕자나무	대나무	21
修巖宗宅	석류나무, 무궁화, 모과나무, 은행나무, 불두화, 호도나무, 배롱나무, 감나무, 영도나무, 홍단풍, 참나무, 대추나무, 무화과, 배나무, 느티나무, 매화나무, 산수유, 골담초, 구기자	탕자나무, 측백나무, 사철나무, 가이뜨카향나무, 주목, 전나무	오죽, 작약, 목단	28

V. 摘要

尙州地方에 位置하고 있는 朝鮮時代 後期の 士大夫 住宅을 中心으로 外部 空間 特性에 關하여 파악함으로써 傳統 空間을 定立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1. 住宅立地는 陰陽五行設에 크게 影響을 받은 風水地理設에 의하여 自然環境을 찾아 選地한 것이다.

2. 空間構成은 垓地를 長方形의 울타리 속에 建物 配置는 主 建築物인 안채, 사랑채 配置를 가지고 안마당의 構成은 長方形의 形態를 이루고 사랑채에 달린 半 公的인 사랑마당도 垓地의 性格에 다소 差異는 있으나 加급적 長方形의 形態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男女의 生活 領域性은 空間 分할에서 뚜렷이 하고 있다.

3. 動線體系는 建物配置가 東西 四宅論에 맞게 되었으므로 方向은 直線 또는 斜線의 方向이면서 主入口에서 안방까지는 흐름을 바꾸는 복잡한 動

선을 주고 있다.

4. 庭園特性은 垆地위에 特別한 景觀을 만들려는 造景的 의도는 적었으며 채소원을 갖는 實用園과 實用 또는 그늘수를 植栽하였고 밖에 展開되는 主 眺望 對象을 사랑채에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借景의 方法을 導入하고 있다. 특히 연못을 만들지 않았으며 주변의 개천을 景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5. 住宅내외에 채소원을 갖는 庭園空間 배치를 하고 있으며 상록수 보다는 낙엽수의 植栽 비율이 높다.

引用文獻

- 姜善仲(1984), 韓國傳統 마을의 空間構成 方法에 對한 研究. 明知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84.
- 金世泉, 崔萬峰(1986), 庭園計劃設計論, 新學社: 336.
- 柳時浣(1991), Personal communication.
- 閔庚珪(1985), “韓國의 傳統 庭園”, 韓國庭園學會誌, 4(1): 89~101.
- 朴吉龍(1984), “韓國庭園의 構成要素에 關한 研究”, 韓國庭園學會誌, 3(1): 1~25.
- 朴時翼(1987), 風水地理設 發生배경에 關한 分析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 朴鍾和, 黃琪源, 兪炳林(1989), 朝鮮朝 庭園의 原型,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環境計劃研究所: 282.
- 邊雨燦(1976), 李朝時代 庭園의 樹木과 配置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133.
- 金基卓, 權泰乙, 金子想(1991), 尙州文化研究, 尙州産業大學校: 38~94
- 尙州市郡(1989), 尙州誌: 850~883.
- 신병철, 신상섭, 조상묵(1989), “傳統住宅 外部空間의 視覺的 特性에 關한 研究”, 韓國庭園學會誌, 7: 36~51.
- 申相燮, 郭炳華(1991), “傳統住宅의 空間構成과 庭園에 關한 基礎研究”, 韓國庭園學會誌 9: 31~51.
- 申榮勳(1983), “韓國의 살림집(上), 悅話堂.
- 沈愚京(1988), “造景에서 生態學과 風水思想의 關聯性”, 韓國庭園學會誌, 6(1)~71
- 安英培(1978), 韓國建築의 外部空間(1), 寶晉齋.
- 楊水龍(1976), 李朝時代의 住宅庭園에 對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1~22.
- 尹英活, 李基誼, 朴烽宇, 趙鉉吉(1990), “韓國傳統마을의 空間構成과 民家 庭園樣式” - 왕곡마을을 中心으로 -, 韓國造景學會誌, 18(2): 95~110.
- 李國欽(1986), 傳統住宅의 外部空間 構成要素에 關한 研究, 清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碩士論文: 282.
- 李王基, 朴明德(1989), 韓國의 班家(1), 建築史 第11月號.
- _____, _____(1990), 韓國의 班家(5), 建築史 第3月號.
- _____, _____(1990), 韓國의 班家(9), 建築史 第6月號.
- _____, _____(1990), 韓國의 班家(11), 建築史 第8月號.
- 李重煥(1972), 擇里志, 乙酉文化社.
- 李智泳(1987), 傳統마을 空間構成의 原型的 秩序에 關한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79.
- 李鉉圭(1985), 尙州地方의 氣象觀測 結果에 對한 考察, 尙州農業專門大學 論文集, 25: 79~82.
- 朱南哲(1991), “韓國傳統住宅의 外部空間”, 環境과 造景, 43: 100~105.
- 鄭瞳昨(1974), “李朝時代 庭園에 關한 研究”, 造景學會誌, 3: 21~37.
- 鄭寅國(1978),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15.
- 鄭在明(1991), Personal communication.